

청년 니트(NEET) 장기 경험자의 삶 만족에 대한 비교 연구

남재량*

본 연구는 청년 니트를 장기적으로 겪을 경우 삶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인 소위 ‘묻지마’ 범죄와 관련하여 청년 니트의 일부로 알려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이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비구직 니트를 연속으로 경험한 청년의 이후 고용성과는 비경험 청년의 경우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2년 연속에 그치지 않고 5년 연속 경험할 경우 삶에 대한 극단적인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비경험자들의 경우와 완전히 구분되는 인식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구직 니트 경험이 시작되기 3년 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인식은 다른 청년들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와 불신 및 참을성과 신증성에 있어서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년 니트 장기 경험이 삶에 대한 극단적인 인식을 초래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특정 청년들이 그러한 인식을 가진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따라서 장기 니트 경험자를 찾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청년의 니트 경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 예컨대 교육수준 별 청년 노동력 수급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정책 등을 바로잡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주요용어 : 청년 니트 장기 경험자, 삶에 대한 인식, 극단적 인식

1. 서론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자 문제는 청년의 니트(NEET)화 현상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청년 니트, 특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는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파악한 15~34세 청년 가운데 비구직 니트의 수가 2017년 들어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더욱 증가하여 2020년 1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구직 니트가 청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10.5%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졌다. 구직 니트를 포함한 청년 니트 비율은 14.1%를 기록하고 있다.(남재량, 2021)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의 니트화 현상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이로 인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청년이 비노동력화 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감소하고 있는 청년 인구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정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년 본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나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축적된 인적자본마저 노후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청년 시기에 니트를 경험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더라도 고용될 확률이 낮아지고 고용된다 고 하더라도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다.(남재량, 2013) 청년기의 니트 경험이 그 당시 뿐 아니라 나중에 이들이 중년이 되더라도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100만명이 넘는 대규모로 유희화된 청년 노동력이 이후 어떠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등장하게 될 것인지를 문제는 이들의 생산성 저하와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청년 니트 가운데 일부는 은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흔히 이들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라 부르고 있다. 일본에서 이미 사회 문제화된 바 있는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우려스러운 문제일 가능성이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다.

최근들어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레 더욱 자주 들리고 있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거나 시도된 것과 관련이 깊다. 흔히 ‘묻지마 범죄’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주로 은둔형 외톨이와 유사한 부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 이다. 실제로 고립적인 은둔 생활을 하는 청년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에 따른 불만의 표출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실체와 범죄화 가능성 등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청년 니트 가운데 일부가 은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청년 니트 문제를 통해 이들에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이들에 대한 정보의 일부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니트 가운데 특히 그러한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이들은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 니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년 니트에 대한 분석에 많이 활용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이다. 이 조사는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표본을 크게 확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니트 장기 경험자 및 이들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정보도 일부 얻을 수 있어 본 연구에 유용하다.

본 연구는 먼저 KLIPS의 2018년 통합표본을 사용한 자료로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들을 산출하여 공식통계와 비교하여 본다. 다음으로 청년 니트 경험과 이의 장기화가 이들의 이후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한다. 나아가 니트 경험 및 이의 장기화가 이들의 삶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를 초래하고 있는 지를 다른 청년들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II. 청년 니트(NEET) 현황

청년 니트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KLIPS의 2018년 통합표본을 사용하여 산출한 경제활동 지표들이 공식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의 결과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표 1>과 <표 2>는 각각 두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활동상태를 측정된 지표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 1>에서 KLIPS 상의 고용률을 보면, 60%를 중심으로 오르내리며 약한 상승추세를 보인다. 경활 상의 고용률은 <표 2>에서 보듯이 6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두 고용률 자료를 그림으로 그려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두 고용률 시계열은 2018년 2.8% 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나, 이후 이 둘의 사이는 매우 가까워졌다. 특히 2022년에 두 조사 상의 고용률은 60.6과 60.7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참가율과 실업률 자료를 보더라도 두 조사의 결과는 그리 다르지 않다. KLIPS 상의 참가율은 61%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경활 상의 참가율은 63%를 중심으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한다. 약간의 수준 차이가 있을 뿐 두 조사 자료에서 참가율의 움직임은 유사하다. 이러한 모습은 실업률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KLIPS 자료에서 실업률이 경활의 실업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일 뿐 두 시계열에서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결국 두 조사에서 산출한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의 수준 및 움직임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표 1> 경제활동상태 및 주요 지표 : KLIPS(한국노동패널조사)

(단위: 명,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13,886	14,057	14,208	14,317	14,430
	실업자	380	445	430	419	309
	비경제활동인구	9,133	9,084	9,317	9,093	9,092
	계	23,399	23,586	23,955	23,829	23,831
고용률		59.3	59.6	59.3	60.1	60.6
참가율		61.0	61.5	61.1	61.8	61.8
실업률		2.7	3.1	2.9	2.8	2.1

자료: KLIPS 원자료(한국노동연구원).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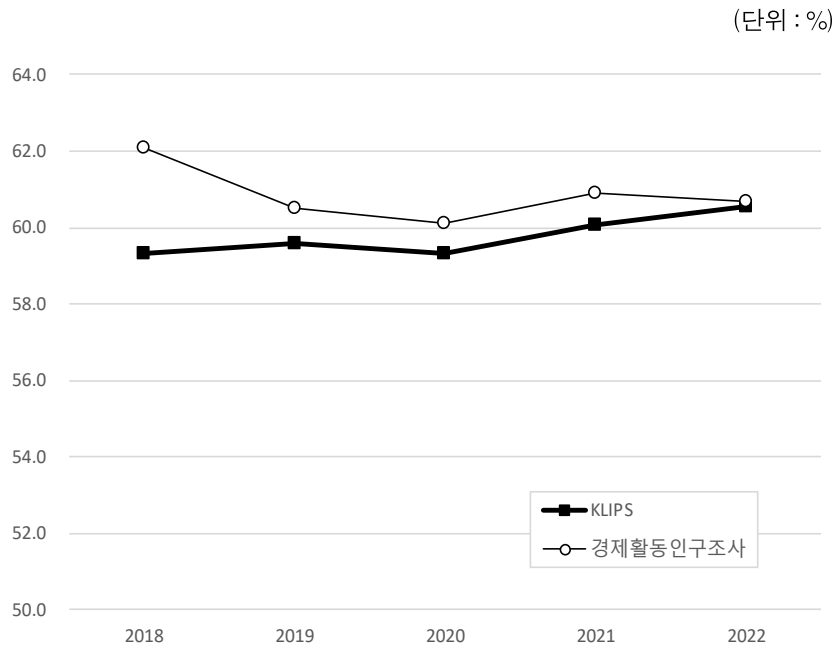
<표 2> 주요 경제활동상태 지표 :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고용률	62.1	60.5	60.1	60.9	60.7
참가율	63.9	62.8	62.5	63.3	63.1
실업률	2.9	3.7	4.0	3.8	3.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KOSIS)

[그림 1] 고용률 비교



자료 : KLIPS, 경제활동인구조사(KOSIS).

이제 본 연구가 주로 분석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요 고용지표들을 살펴보자. <표 3>에서 보듯이 1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요 노동시장 지표들은 앞에서 본 전체 지표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청년 고용률은 분석기간에서 평균 45% 정도이며, 약간의 상승추세를 보인다. 참가율은 48% 수준이며 역시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6.5%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고용률과 참가율이 경제전체의 경우에 비해 낮고 실업률이 높은 것은 청년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표 3> 경제활동상태 : 청년(15-34세)

(단위 : 명,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경제 활동 상태	취업자	3,105	3,066	3,026	3,040	3,136
	실업자	198	267	231	218	180
	비경제활동인구	3,779	3,598	3,623	3,378	3,290
	계	7,082	6,932	6,879	6,636	6,607
고용률		43.8	44.2	44.0	45.8	47.5
참가율		46.6	48.1	47.3	49.1	50.2
실업률		6.0	8.0	7.1	6.7	5.4
비경활비율		53.4	51.9	52.7	50.9	49.8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청년 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가 차지하는 비율인 ‘비경활비율’이 52% 가까운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인다.(표 3) 이는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많은 나라들에서 청년들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과 실업률은 경제전체의 경우에 비해 높은 편이나, 한국은 특히 비경활 비율이 높다.

청년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화 경향은 흔히 한국 청년의 니트(NEET)화 현상으로 불린다. 이에 대해서는 <표 4>에서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다. 청년 인구 가운데 니트가 차지하는 비율, 즉 니트 비율이 평균 17.6%로 매우 높으며, 2020년에 이 비율은 18.8%에 이른다.

<표 4> 청년 니트(NEET)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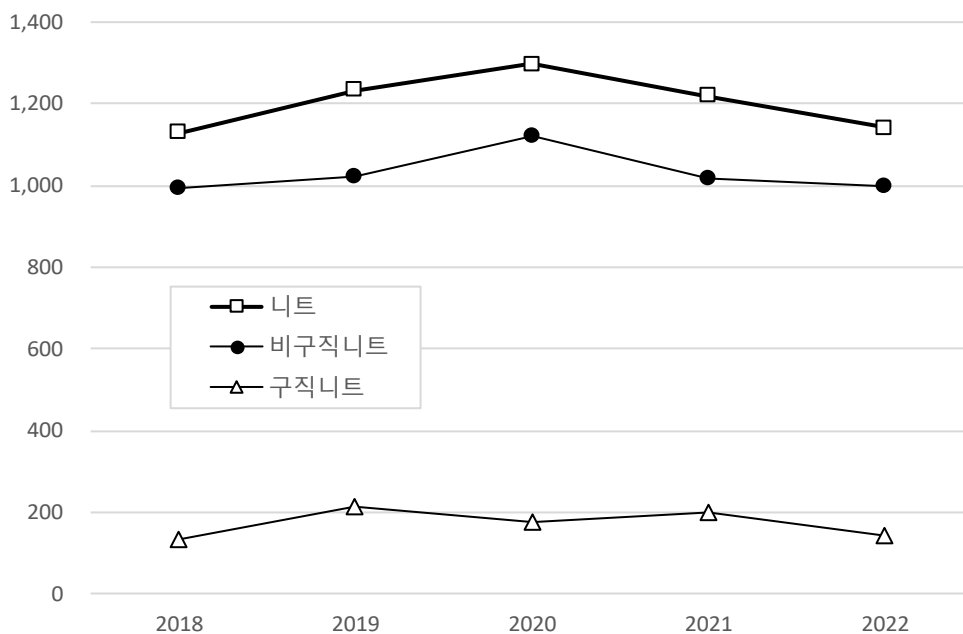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니트(NEET)	1,128	1,233	1,295	1,218	1,140
비구직 니트	995	1,021	1,120	1,016	999
구 직 니 트	133	213	175	202	141
니트(NEET) 아님	5,954	5,699	5,584	5,418	5,466
15-34세 인구	7,082	6,932	6,879	6,636	6,607
니트 비율	15.9	17.8	18.8	18.4	17.3
비구직니트 비율	14.0	14.7	16.3	15.3	15.1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그림 2] 청년 니트 현황

(단위 : 천명)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청년 니트¹⁾ 가운데 구직활동조차 하고 있지 않은 비구직 니트의 비율도 평균 15% 수준으로 매우 높다. 이렇다보니 비구직 니트 인구가 [그림 2]에서 보듯이 대체로 100만 명 수준이고 2020년에 112만 명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높은 비구직 니트 비율 및 이들의 큰 규모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III.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별 경제활동 비교

이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의 이후 경제활동상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표 5>는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15~34세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상태를 그 다음 해부터 추적 관찰하여 정리한 것이다.²⁾

이 표에서 보듯이 2018년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15~34세 청년은 100% 비경제활동인구이다. 반면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년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인 비율은 46.3%이며, 취업자의 비율이 51.0%로 높고 나머지 2.6%는 실업자의 비율이다.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이 세 비율의 시간에 걸친 변화를 비경험자와 비교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을 각각 그림으로 그려 제시하였다.

<표 5> 201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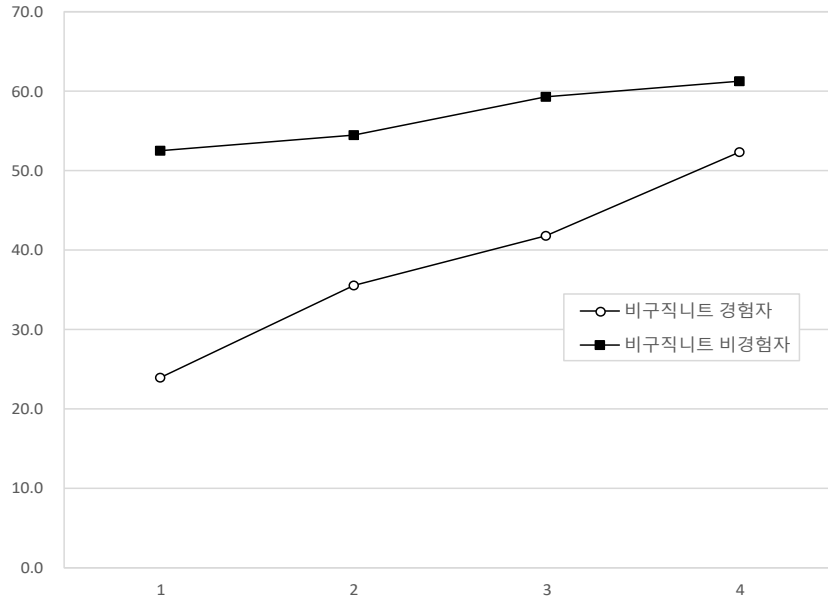
15-34세		2018년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	취업자 비율	0.0	23.9	35.6	41.9	52.4
	실업자 비율	0.0	6.0	3.3	5.1	3.1
	비경활 비율	100.0	70.1	61.1	53.0	4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비구직 니트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51.0	52.6	54.5	59.4	61.4
	실업자 비율	2.6	2.9	2.4	2.4	1.9
	비경활 비율	46.3	44.5	43.2	38.3	3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 존재함.

1) 본 연구에서 니트(NEET)라 함은 남재량(2006)의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즉 청년 니트(NEET)란 청년 가운데 일을 하거나 통학을 하지도 않고 가사노동(육아, 가사 등)을 하고 있지도 않으며, 배우자도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청년 니트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구직 니트,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구직 니트라 한다.
 2) 25~34세와 25~29세의 경우에 대한 결과는 각각 <부표 1>과 <부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취업자 비율 :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별, 15-34세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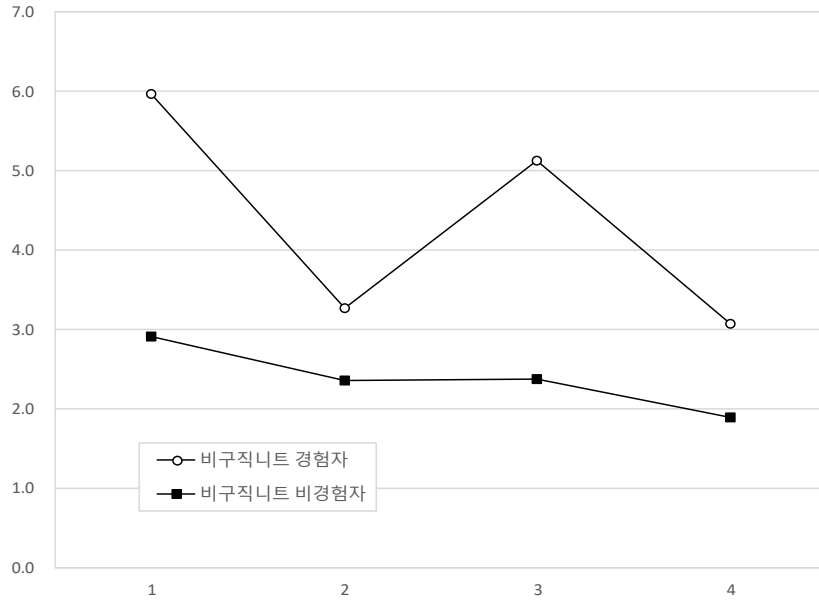
201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 100명 가운데 24명 가량(표 5)이 1년이 경과한 다음 취업자로 되었는데, [그림 3]에서 보듯이 해가 거듭될수록 취업상태에 있게 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4년이 경과한 2022년에 취업자 수는 52명 정도이다. 즉 비구직 니트 경험자가 그곳에서 탈출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경우가 해를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지 않은 일반 청년들 가운데 이후 취업상태에 있게 되는 비율인 검은색 네모를 가진 실선이 흰색 동그라미를 가진 실선(비구직 니트 경험자) 보다 이후 4년 동안 모두 더 높다. 즉 취업자 비율로 나타낸 노동시장 성과에서 비구직 니트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성과가 크게 뒤진다. 그러나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취업자 비율 증가 속도가 비경험자의 경우보다 더 빠르다. 이에 따라 둘의 취업자 비율 차이는 처음 28.7% 포인트로 컸으나, 4년 뒤가 되면 9% 포인트로 축소되었다. 즉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비경험자에 미치지 못하지만 비경험자의 추격속도가 더 빨라 그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실업자 비율로 나타내어 보면 비구직 니트 경험자가 비경험자 보다 모든 경우에서 더 높으며 뚜렷한 추격 추세를 찾아보기 힘들다.(그림 4) 비경험자의 실업자 비율은 이후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이지만, 경험자의 경우는 하락 추세에 있기는 하나 변동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실업자 비율로 볼 때,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성과는 비경험자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 실업자 비율 :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별, 15-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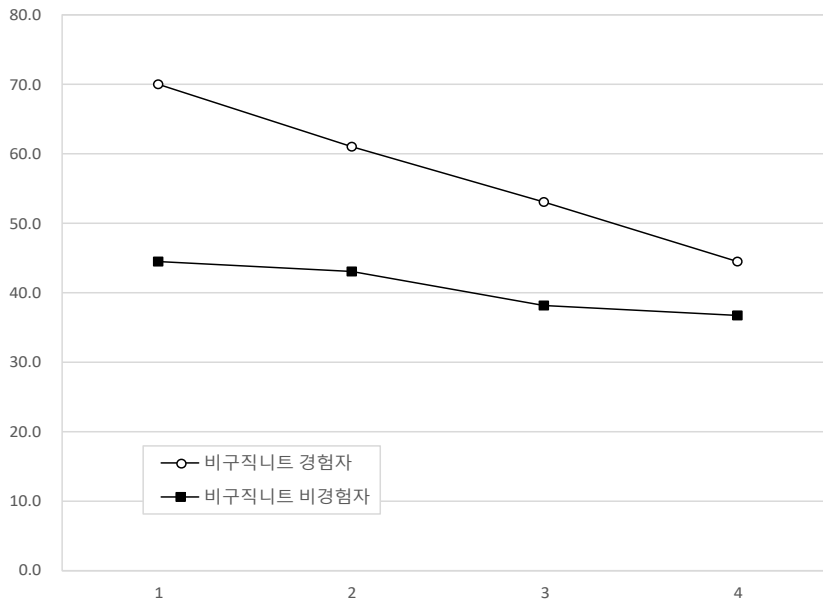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그림 5]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별, 15-34세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그림 5]에서 보듯이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이후 4년 동안 모두 더 높다. 그러나 경험자의 이 비율의 하락추세가 비경험자의 경우보다 가파르다. 비

구직 니트 경험 1년 후 비경황 비율은 70.1% 였으나, 4년 후 이 비율은 44.5%에 불과하다. 비경험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44.5%에서 36.8%로 감소하였을 뿐이다. 1년 경과 후 양자의 차이가 25.6% 포인트로 컸으나, 4년이 경과하면 이 차이가 7.7% 포인트로 크게 줄어든다.

결국 비구직 니트 1년 경험자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는 비경험자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지만, 비경험자의 성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1.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고용 성과

이제 비구직 니트를 2년 연속으로 경험하는 청년의 이후 노동시장 고용 성과를 비경험자(전혀 경험하지 않았거나 1번 경험한 청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표 6>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세 가지 비율을 그림으로 그려 제시하였다.

먼저 취업자 비율을 보면, 2연속(2018~2019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 격차가 매우 크다.(그림 6) 양자간 격차는 경과된 해수에 따라 33.6 → 28.3 → 22.4 (%포인트) 이다.(표 6) 3년 이 경과한 후에도 양자의 격차는 22.4%포인트인데, 이는 앞에서 보았던 비구직 니트 1년 경험자의 3년 경과까지의 비경험자와 격차인 28.7 → 18.9 → 17.5 (%포인트) 보다 각각 4.9 → 9.4 → 4.9% 포인트 더 크다.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비경험자의 취업자 비율 격차는 이후 시간이 경과 하더라도 1년 경험자-비경험자의 취업자 비율 격차와 간격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2년 경과하였던 때의 간격은 오히려 9.4% 포인트로 더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비구직 니트 1년 경험자와 2년 연속 경험자는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두 집단의 성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8]에서 보듯이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이후 변화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³⁾

<표 6>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주요 고용 성과 : 15~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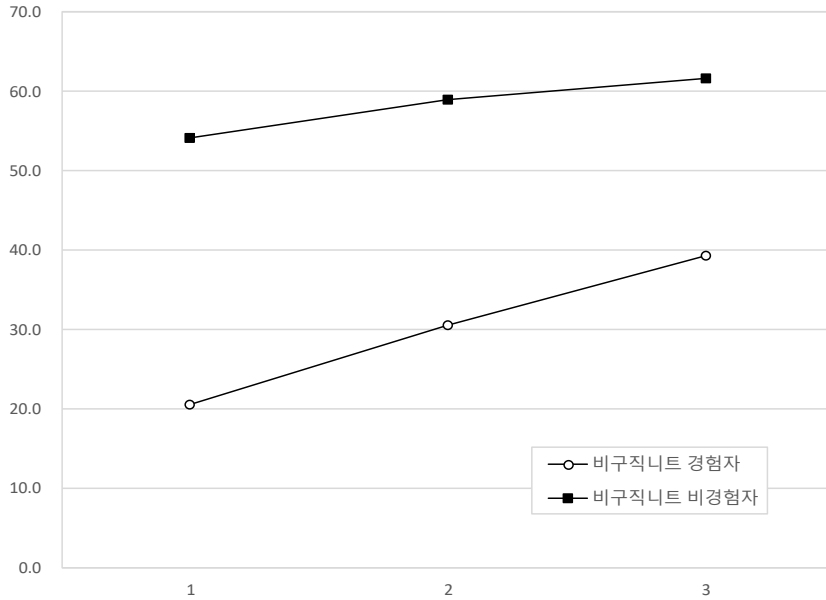
(단위 : %)

15-34세		2018~2019년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2020년	2021년	2022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	취업자 비율	0.0	20.5	30.6	39.3
	실업자 비율	0.0	1.6	1.6	2.5
	비경황 비율	100.0	77.9	67.7	58.3
	계	100.0	100.0	100.0	100.0
비구직 니트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52.7	54.1	58.9	61.7
	실업자 비율	3.6	2.5	2.8	2.0
	비경황 비율	43.7	43.3	38.3	36.3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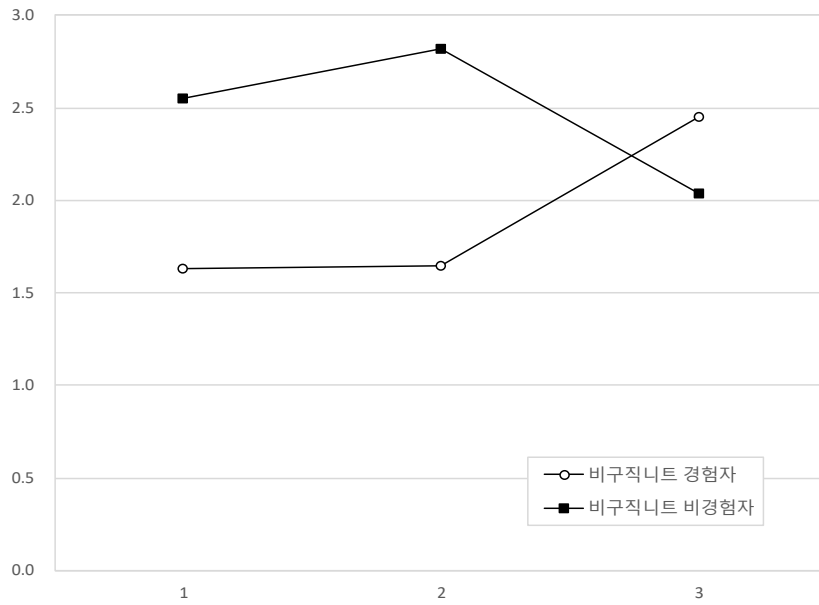
3) 실업자 비율에서 격차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그림 7) 논의를 생략한다.

[그림 6]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별 취업자 비율 : 15~34세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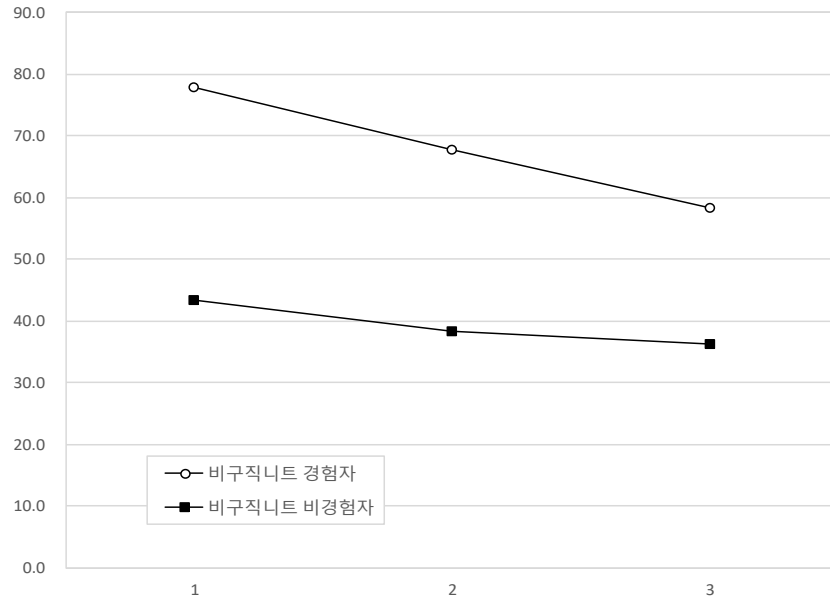
[그림 7]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별 실업자 비율 : 15~34세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그림 8]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15~34세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IV.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별 삶에 대한 인식 비교

이제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보자. 비구직 니트를 2년 연속으로 경험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다 오랜 기간 연속으로 경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분석도 실시하기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결과의 차이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삶에 대한 인식은 KLIPS에서 2017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다. 2015년 KLIPS 부가조사 주제가 ‘삶의 인식’이었는데, 당시 조사된 문항 가운데 일부가 2년 후부터 KLIPS 본조사 문항으로 옮겨져 조사되고 있다. 이 문항은 먼저 맨 아래의 0 부터 맨 꼭대기의 10 까지 쓰여진 사다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나서 사다리의 맨 꼭대기(10)는 응답자의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나타내고 맨 아래 (0)는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때, 응답자는 지금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다. 따라서 사다리는 모두 11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현재 KLIPS에서 삶에 대해 응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이다. 물론 이 질문 다음에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라는 행복도에 대한 질문이 있고 이에 대해서도 삶에 대한 인식 사다리 문항과 마찬가지로 0

부터 10까지 11가지 항목의 응답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두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는 ‘삶에 대한 인식’ 변수만 분석에 사용하기로 한다.

1. 비구직 니트 경험 이후

먼저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에 따라 이후 삶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자. <표 7>은 비구직 니트를 2년 연속(2018년과 2019년) 경험한 15~34세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인식 사다리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삶에 대한 인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의 응답을 각각 백분율로 계산한 것과 이들의 5년 전체 평균 및 최근 3년 평균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소 복잡한 이 표에 대한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2018~2022년의 5년 동안 응답한 평균을 그림으로 그려 [그림 9]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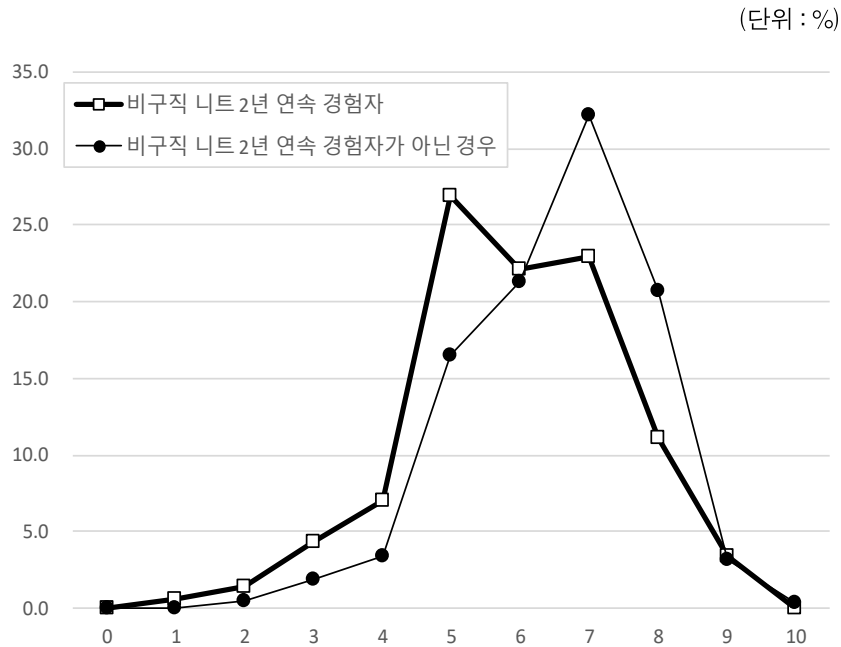
<표 7> 비구직 니트 2년 연속 경험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삶에 대한 인식

(단위 : %)

	삶 인식 사다리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2018~22)	평균 (2020~22)
비구직 니트 2년연속 경험자	0	0.0	0.0	0.0	0.0	0.0	0.0	0.0
	1	0.9	0.9	0.0	1.2	0.0	0.6	0.4
	2	3.5	0.0	2.5	0.4	0.9	1.5	1.3
	3	2.2	2.7	7.0	8.2	1.4	4.3	5.5
	4	9.5	7.6	6.8	4.7	6.5	7.0	6.0
	5	28.1	25.1	25.0	28.7	27.6	26.9	27.1
	6	21.0	23.1	17.3	18.5	30.6	22.1	22.1
	7	25.0	24.3	24.4	22.1	19.1	23.0	21.9
	8	8.1	13.5	10.6	9.9	13.6	11.1	11.4
	9	1.6	2.8	6.3	6.3	0.3	3.5	4.3
	10	0.0	0.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구직 니트 2년연속 경험자 아닌 경우	0	0.0	0.0	0.0	0.0	0.0	0.0	0.0
	1	0.1	0.2	0.0	0.0	0.1	0.1	0.0
	2	0.3	0.6	0.2	0.9	0.3	0.5	0.5
	3	2.5	2.2	1.4	2.5	1.1	1.9	1.6
	4	3.7	3.3	3.7	4.1	2.0	3.4	3.3
	5	16.4	16.2	15.2	15.7	18.8	16.5	16.5
	6	19.8	21.5	23.1	20.0	22.4	21.4	21.8
	7	32.7	30.6	31.6	29.4	36.7	32.2	32.6
	8	20.8	21.6	21.6	22.7	16.7	20.7	20.3
	9	3.2	3.5	2.9	4.4	1.6	3.1	3.0
	10	0.5	0.3	0.2	0.3	0.4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그림 9] 비구직 니트 2년 연속 경험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삶에 대한 인식 : 2018~2022년 평균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그림 9]에서 보듯이 비구직 니트 2년 연속 경험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삶에 대한 인식의 분포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비경험자의 인식 분포는 11단계에서 가운데인 5단계 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7단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32.2%) 이 보다 낮은 단계 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 분포를 하고 있다.

반면 2년 연속 경험자의 경우 삶에 대한 인식 분포는 11단계의 중간인 5에 대한 응답 빈도가 26.9%로 가장 높았으며, 7단계에 응답한 비율은 23.0%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그리고 2년 연속 경험자의 분포는 비경험자의 경우보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다만 9단계와 10단계에 응답한 비율은 경험자 집단이건 아니건 간에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0단계에 응답한 경우는 둘 모두에서 0%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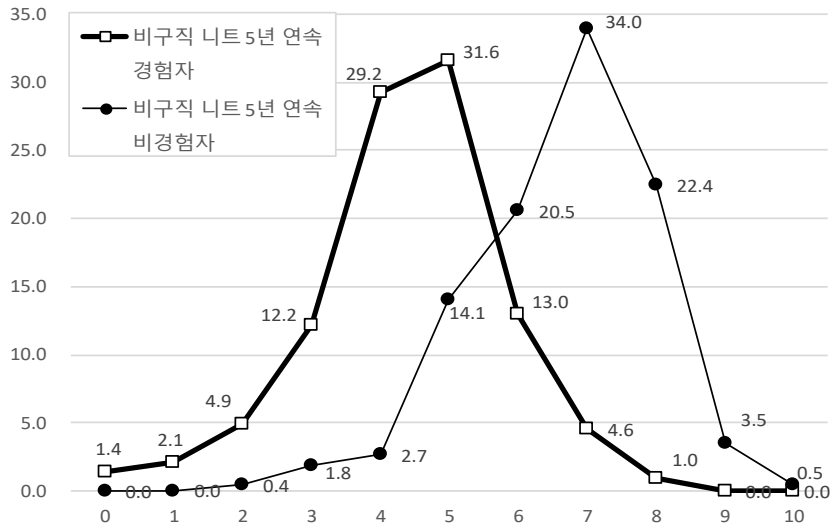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두 분포는 전혀 다른 분포라기보다는 0단계와 9단계 및 10단계에서 뿌리를 공유하면서, 비경험자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가운데 최빈값에 대한 빈도가 다소 큰 차이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5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삶에 대한 인식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경우를 새로 도입하여 이들의 삶에 대한 인식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그림 10]은 이들 두 집단의 삶에 대한 인식을 11단계로 조사한 5년 동안의 결과들을 평균하여 그린 것이다.

[그림 10] 비구직 니트 5년 연속 경험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삶에 대한 인식 : 2018~2022년 평균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그림 10]에서 보듯이 두 분포는 서로 다른 분포로 보인다. 앞의 2년 연속 경험자의 경우는 두 집단이 뿌리를 공유하면서 한 집단의 분포가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모습을 보였다면, 5년 연속 경험 여부 집단의 삶에 대한 인식의 분포는 평균과 분산 및 왜도와 첨도에서 매우 다른 분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5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들은 ‘최악의 상태’인 0단계에 1.4%가 응답하였고 1단계에도 2.1%나 응답하였다. 반면 비경험자들은 0단계와 1단계에 대한 응답이 모두 0% 이다. 반면 5년 연속 경험자 집단의 ‘최선의 상태’(10)와 그 다음 단계(9)에 대한 응답이 모두 0% 이다. 8단계에 대한 응답도 1%에 불과하다. 반면 비경험자 집단의 10단계에 대한 응답은 0.5%이며, 9단계에 대해서도 3.5%가 응답하였고 8단계에 대한 응답은 무려 22.4%에 이른다.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한 단계는 경험자의 경우 5단계의 31.6%이나, 비경험자의 경우는 7단계의 34.0% 이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경험자의 경우 4단계의 29.2%이나, 비경험자의 경우 8단계의 22.4% 이다. 비경험자의 최빈 응답(34.0%)인 7단계에 대한 경험자의 응답은 4.6%에 불과하다. 이처럼 두 집단은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집단처럼 보인다.

나아가 앞에서 보았던 비구직 니트 2년 연속 경험자 여부와 여기서 보고 있는 5년 연속 경험자 여부에 따라 삶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다. 2년 연속 경험자에 비해 5년 연속 경험자에게서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달라져 있다. 즉 0단계와 1단계에 대한 2년 연속 경험자의 응답이 0.0%와 0.6%에 불과하였으나, 5년 연속 경험자에서 이 비율은 각각 1.4%와 2.1%로 높아졌다. 2단계에 대한 응답도 1.5%에서 4.9%로 높아졌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이 바로 삶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0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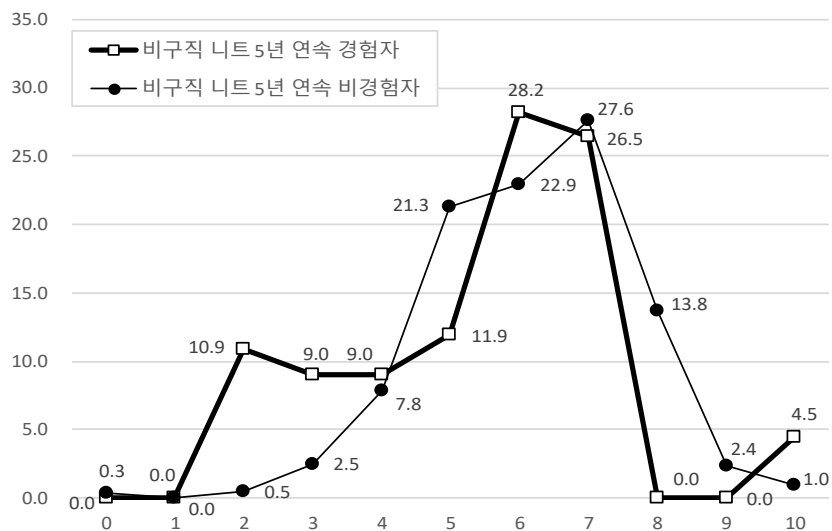
와 1단계 집단이다. 비구직 니트를 2년 연속으로 경험하는 경우에 비해 5년 연속으로 경험하는 경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커졌다. 이러한 결과는 삶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이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자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비구직 니트의 경험이 거듭될수록 부정적 인식이 극단적 인식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만약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이러한 상황에서 저질러진다면, 위의 결과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방향도 알려준다. 비구직 니트의 경험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범죄 예방에 중요할 것이다.

2. 비구직 니트 경험 이전

그렇다면 비구직 니트를 5년 연속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이 그 이전에는 어떠한이었을까? 이 질문은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항에 대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가 비구직 니트 경험의 시작 시점으로 삼고 있는 2018년 보다 3년 앞선 2015년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삶의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이 당시 조사 결과를 사용하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1]은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비구직 니트 5년 연속 경험이 시작되기 3년 전 두 집단 간의 삶에 대한 인식에 있어 그리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5년 연속 경험자 집단의 3년 전 0단계와 1단계에 대한 응답은 모두 0% 였다. 오히려 비경험자 집단의 0단계에 대한 응답이 0.3% 존재하였다. 반면 10단계에 대한 경험자의 응답이 4.5%로 매우 높다. 이는 비경험자의 1%에 비해서도 상당히 크다.

[그림 11] 비구직 니트 5년 연속 경험(2018~2022년) 여부별 삶에 대한 이전(2015년) 인식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2018년 횡단면 가중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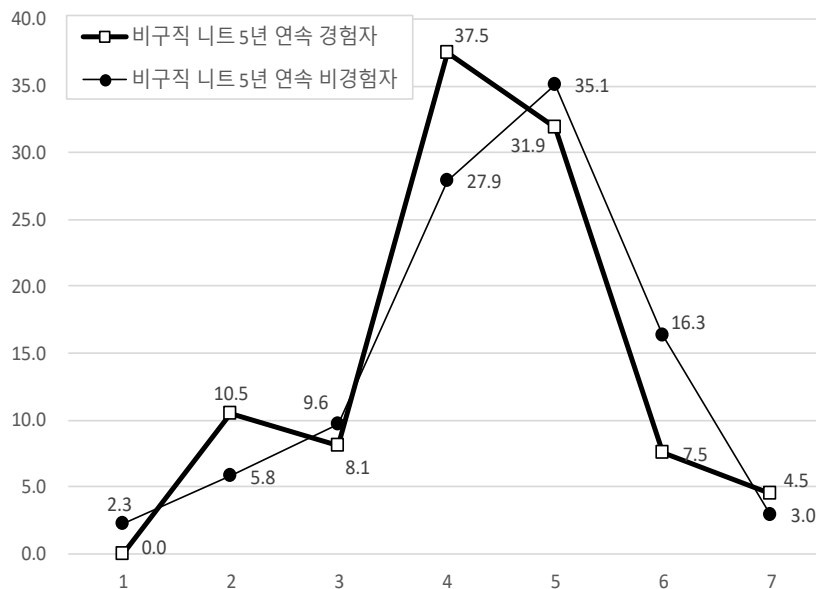
이처럼 5년 연속 경험자의 경험 시작 3년 전 삶에 대한 인식은 비경험자의 경우와 그리 다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최선이라는 응답은 오히려 비경험자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⁴⁾ 이러한 결과는 삶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비구직 니트를 장기간 경험하면서 생겨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즉 비구직 니트 장기 경험자들이 처음부터 삶에 대해 극단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비구직 니트를 장기간에 걸쳐 경험할 경우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삶에 대한 극단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그림 12]는 비구직 니트 5년 연속 경험자가 이 경험을 시작하기 3년 전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비경험자 집단의 경우와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타인 신뢰도란 “대체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질문을 말하며, KLIPS는 이러한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에 대해 1부터 7까지 7가지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두 집단 간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 분포에서 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한 4와 5에 대한 빈도 비율도 비슷하며, 1, 2, 3에 대한 응답 비율 및 6과 7 단계에 대한 응답 비율도 그리 다르지 않다. 이는 두 집단이 비구직 니트 장기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이전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에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삶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이들 두 집단은 원래 별로 다르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그림 12] 타인 신뢰도 : 2015년(18차) 조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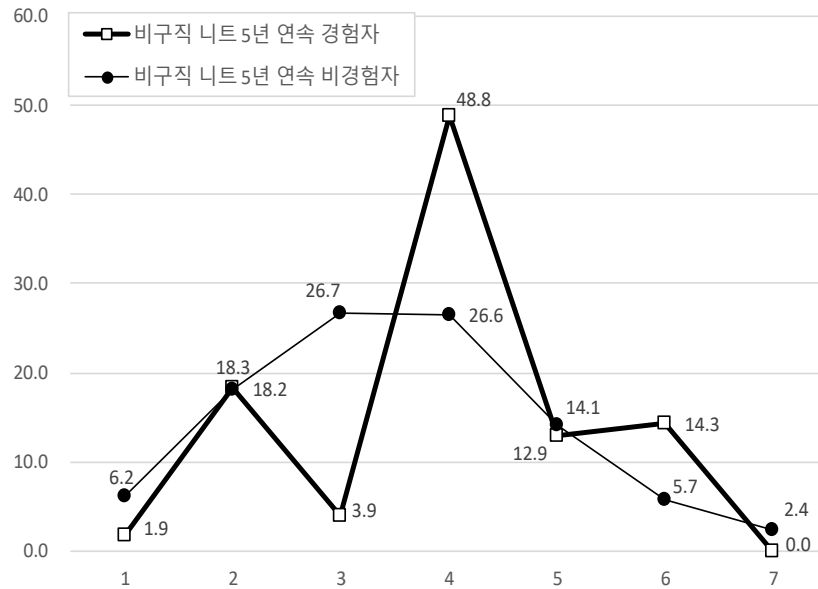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2018년 횡단면 가중치 사용.

4) 다만 2단계에 대한 응답이 갑자기 10.9%로 높아지는 것이 특이한데, 이는 8단계와 9단계에 대한 응답이 모두 0%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5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경험 시작 3년 전 개인을 식별하여 연결하는 과정에서 관측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비용을 우리는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 경우 관측수는 94개로 줄어든다. 이러한 경우 이상치(outlier)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림 13] 타인 불신 : 2015년(18차) 조사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2018년 횡단면 가중치 사용.

타인에 대한 신뢰도 질문을 거꾸로 조사한 결과도 존재한다. [그림 13]은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된다”라는 타인 불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3과 4에 대한 비구직 니트 5년 연속 경험자의 응답 빈도 비율이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점을 제외하면 두 분포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과 4에 대한 응답 비율을 함께 고려하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⁵⁾

[그림 14]는 참을성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참을성이 없습니까, 아니면 참을성이 많습니까”라는 질문에 참을성이 전혀 없다면 1로, 참을성이 아주 많다면 7로 응답하도록 한 조사이다. 그림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참을성에 대한 조사결과의 분포가 두 집단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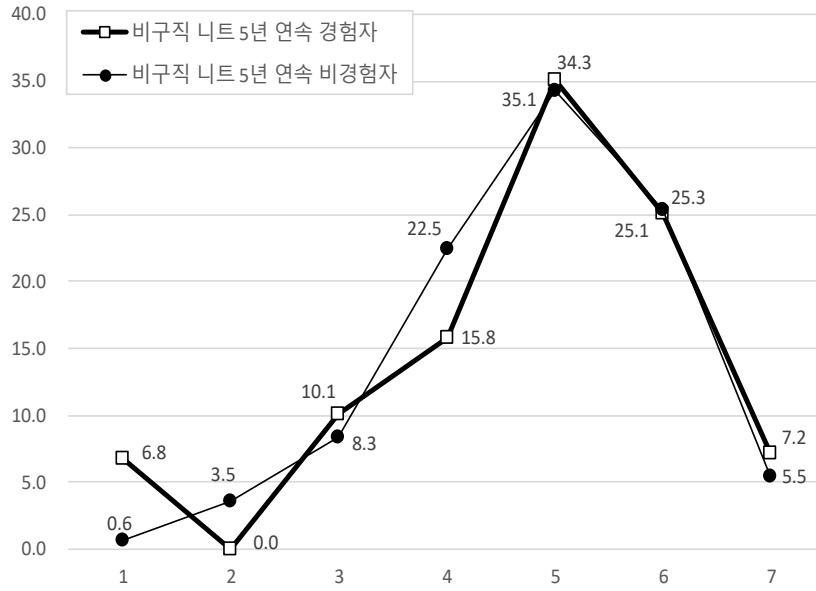
[그림 15]는 신중성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는 신중한 편입니까, 혹은 행동을 취하기 전 숙고를 하지 않는 충동적인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역시 7가지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질문이다. 이 역시 두 집단 간 분포에서 별 차이를 찾기 어렵다. 경험자의 5와 6에 대한 응답에서 변동이 매우 크나, 이 역시 표본수에 따른 문제로 보인다. 5와 6에 대한 각 집단의 응답 비율의 합이 그리 다르지 않다.⁶⁾

5) 이 역시 표본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본 연구와 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위험 감수, 즉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도 있다. “전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위험을 회피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가지로 응답하게 한 질문이다. 1(어떠한 위험도 회피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부도 1]에서 보듯이 두 집단 간에 상당히 크고 3과 4에 대한 응답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나, 나머지 응답에 대한 비율은 두 분포에서 그리 크지 않다.

[그림 14] 참을성 : 2015년(18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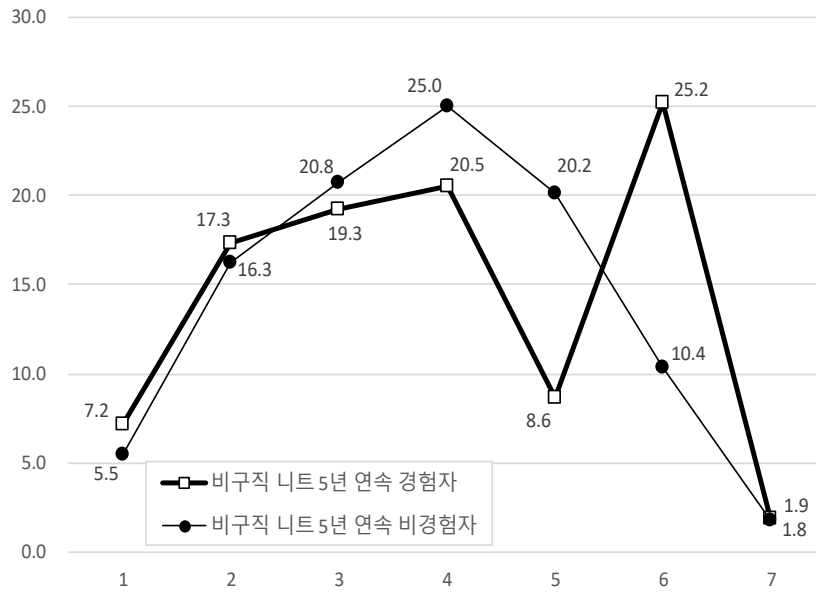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2018년 횡단면 가중치 사용.

[그림 15] 신중성 : 2015년(18차) 조사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2018년 횡단면 가중치 사용.

V. 결 론

본 연구는 청년 니트(NEET) 경험자, 특히 장기 경험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후 고용성과 삶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청년 니트 경험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수록 이후 고용성고가 저조하게 되며 삶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됨을 알게 되었다. 만약 비구직 니트 경험이 5년이나 연속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삶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에게서 관찰되지 않던 삶에 대한 극단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5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에게서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5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시작하기 3년 전에 조사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들과 비경험자 간에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의 분포에 있어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나 불신의 정도 및 참을성과 신중성에 있어서도 경험자와 비경험자 집단 간에 구분되는 특징을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들은 비구직 니트를 5년 연속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삶에 대한 인식 차이는 비구직 니트 경험에 따른 사후적인 결과이며, 사전적으로 삶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 두 집단은 개인의 성격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사전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라고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타인에 대한 신뢰나 불신을 비롯하여 참을성과 신중성에서도 두 집단 간 근본적인 차이를 찾기 어려웠다.

결국 삶에 대한 극단적인 인식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비구직 니트 경험과 같은 사건들에 의해 생겨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만약 삶에 대한 극단적인 인식이 범죄로 이어진다면, 범죄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비구직 니트를 장기간에 걸쳐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정책 및 고학력에 대한 합리적이지 못한 과도한 수요 등으로 인해 청년 대졸 노동력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비구직 니트가 많이 생겨나고 이의 누적으로 장기 비구직 니트가 대규모로 양산된다면, 장기 비구직 니트를 찾아내어 조치하는 등의 정책도 필요하겠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에 의한 공급 실패나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교육 수요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기 비구직 니트는 계속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남재량(2021), “COVID-19 충격이 청년 니트(NEE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2021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2021.10.
- _____(2019), 「청년 니트(NEET)와 중년 니트(NEET) 연구」, 2019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2019.12
- _____(2013), 「청년 니트(NEET)의 노동시장 성과」,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남재량·김세움) 제3장,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2006.2.

부 록

<부표 1> 201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경제활동상태 변화 : 25~34세

(단위 : %)

25-34세		2018년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	취업자 비율	0.0	25.7	39.3	46.5	60.3
	실업자 비율	0.0	7.3	2.7	1.4	1.0
	비경활 비율	100.0	67.0	58.0	52.1	3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비구직 니트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80.1	77.3	77.1	78.9	80.7
	실업자 비율	3.5	3.6	1.8	1.6	0.6
	비경활 비율	16.4	19.1	21.1	19.5	1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부표 2> 201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경제활동상태 변화 : 25~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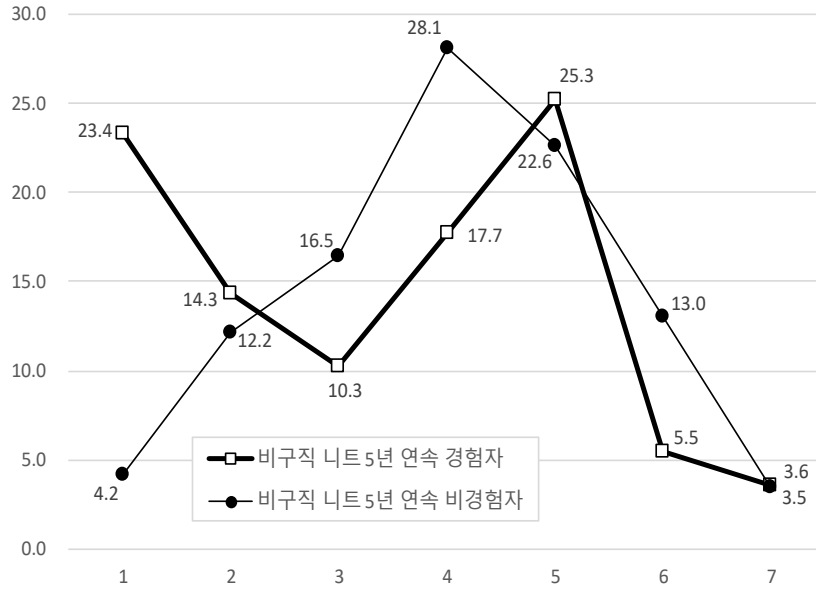
(단위 : %)

25-29세		2018년	1년 경과	2년 경과	3년 경과	4년 경과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	취업자 비율	0.0	27.4	39.0	55.1	65.8
	실업자 비율	0.0	6.1	3.9	0.6	1.5
	비경활 비율	100.0	66.6	57.1	44.3	3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비구직 니트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79.1	75.3	77.4	79.4	81.7
	실업자 비율	4.4	6.3	3.0	2.3	0.3
	비경활 비율	16.5	18.3	19.6	18.4	1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횡단면 가중치 사용.

[부도 1] 18차 위험감수 : 2015년(18차) 조사

(단위 : %)



자료 : KLIPS 원자료. 21차(2018년) 통합표본. 2018년 횡단면 가중치 사용.